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의 오류 사용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Use of Fallacies in the 2022 Korean Presidential Debates

허만섭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Man-Sup Heo(episteme@gwnu.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증'인 '오류(fallacie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개 형식적·비형식적 오류 개념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해 첫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240분 분량)의 후보 발언들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세 후보가 허수아비, 혼제 청어, 선결문제, 복합질문,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 등 15종, 23건의 비형식적 오류를 범한 점이 발견된다. 후보들은 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의제를 방어하고 상대의 이미지와 의제에 타격을 주려는 맥락에서 유사논증인 오류를 활용했다. 특히, 답하기 곤란한 의제에 직면할 때 여러 유형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팩트체크에 걸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도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선행 연구는 오류 체계를 관념적으로 다뤄온 편이지만, 이 연구는 이 체계가 대선후보 TV토론 같은 중요한 정치 콘텐츠의 분석 및 해석 틀로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인 정치토론에서 오류가 과사용 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 중심어 : | 20대 대선 | 후보 TV토론 | 오류 | 논증 | 허수아비 | 혼제 청어 | 선결문제 | 복합질문 | 성급한 일반화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how fallacies, arguments that seem valid but are not, appear in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debates. It qualitatively analyzes the candidates' remarks in the first and last presidential debates (240 minutes) using 20 formal and informal fallacy concepts as a theoretical framework. Results show that the three candidates used 23 informal fallacies from 15 categories, including the straw man, red herring, begging the question, complex question, hasty generalization, appeal to the masses, and you too. The candidates relied on fallacies to defend their image and electoral agenda from adversary attacks and to contaminate their opponent's image and agenda. The arguers, who struggled with tough questions, frequently made fallacies as pseudo-arguments to avoid the situation without lying and violating election law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allacy system can be a framework for analyzing crucial political content. Moreover, it warns against the abuse of fallacies in TV debates.

■ keyword : | South Korea | 2022 Presidential Debates | Fallacies | Straw Man | Red Herring | Begging The Question |

접수일자 : 2022년 08월 23일

수정일자 : 2022년 10월 04일

심사완료일 : 2022년 10월 17일

교신저자 : 허만섭 e-mail : episteme@gwnu.ac.kr

I. 서론

대통령선거는 말과 글로 된 콘텐츠로 경쟁자를 제압하고 다수 국민을 설득하여 국가의 통치 권력을 획득하는 장이다[1]. 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텔레비전 토론회는 유권자가 대선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여겨진다[2].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미국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선후보 간 상호 비방은 적지 않게 목격된다[3]. 2022년 3월 실시된 20대 대선에 대해서도 YTN 등 여러 매체는 “선거 내내 진흙탕 싸움…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규정했다[4].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치 콘텐츠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인 오류가 어떻게 쓰이는지 탐구한다. 후보가 토론에서 오류를 자주 활용한다면, 선거의 민의(民意)는 오도(誤導)될 수 있다. 대선후보 등이 잘못된 논증을 구사하는 문제는 해외에서 가끔 실증됐다[5-7]. 한 국내 연구는 정치담화 내 오류의 분석과 관련해 주장의 맥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8]. 대선후보가 오류를 말할 수 있고, 이 오류가 민주적 권력을 결정하는 공론장을 오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와 조사는 시급하다.

오류는 전제에 기초해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주장인 논증의 형태를 띤다[9]. 영향력 있는 오류 연구자인 햄블린은 오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0].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증
(an argument that seems to be valid but is not so)*

또, 오류는 “전제가 결론을 아주 약하게 지지하는 논증”[11], “원칙적으로 부당한 논증”[12], “논증의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13], “개연성이 높지 않은 논증을 개연성이 높은 것처럼 말하는 것”[14], “좋은 논증의 기준을 어기고 있고 특정한 이름을 부여받을 만큼 자주 대화에 나타나는 것”[15]으로 규정된다. 한 연구는 오류를 엄밀한 의미의 타당성이 없는 논증과 느슨한 의미의 타당성이 없는 논증으로 나눈다[16]. 문헌은 ‘형식적 오류(formal fallacies)’와

‘비형식적 오류(informal fallacies)’로 오류를 구분하는데, 이 연구의 토론 분석에 적용된다[17][18].

이 논문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TV토론의 타당한 논증 구조를 논하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인 형식적·비형식적 오류의 개념들을 검토하며, △정치담화에서의 오류 사용 양상을 실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정치 콘텐츠 속 오류’의 지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어, 연구의 주된 목적과 관련해, 4장의 분석 결과와 5장의 결론에서 △주요 오류 개념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해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 함의를 토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TV토론의 타당한 논증 구조

오류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므로, 타당한 논증을 이해하는 것은 오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연사가 주장을 펴는 ‘연설’과 복수의 토론자가 공방을 주고 받는 ‘토론’에서 논증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

보울즈에 따르면, 논증은 대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다. 결론을 지지하는 물리적 증거(논거)는 전제에 포함된다[19]. 데이머는 논증을 “옳다고 믿는 전제와 그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되거나 입증되는 결론으로 구성되는 진술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20].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타당한 논증은 저명한 연구자인 월턴의 ‘너와 나의 논쟁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21]. 한국 대선 TV토론엔 여러 후보가 출연하지만, 양자 토론이 돌아가며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판적 논의(critical discussion)”로 명명되는 양자 토론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결론을 갖는다[22]. 이 결론은 완벽한 입증이 아닌 그럴듯한 입증만을 요구받는다[23]. 그래서 논증의 전제는 “개연성이 높은 통념(endoxa)”으로 불린다[24]. 월턴에 따르면, 토론의 핵심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추론한다”라는 점이다. “너의 전제들(your premises)”에서 “나의 결론(my conclusion)”을 끌어내는 것이 타당한 논증이고 토론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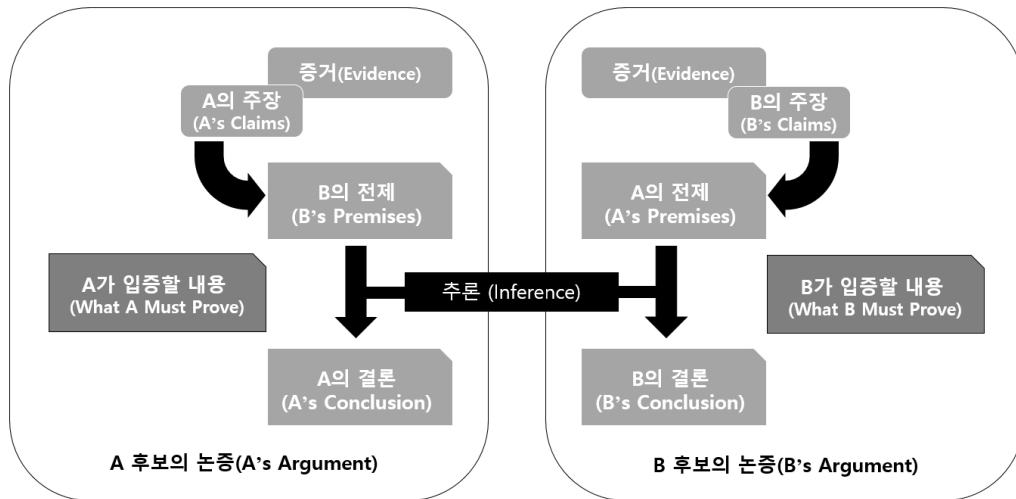


그림 1.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타당한 논증 구조

가정적으로, TV토론에서 A 후보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라는 액튼의 말을 인용한다. 또, “법은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와 부패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들은 완벽히 진실하진 않아도 개연성이 높은 통념이며, 상대방 B 후보가 수용할만한 전제들이다. 이 전제들로부터 A 후보는 “그러나 B 후보님 측이 이 제도를 유명무실화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이 주장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지만, 올바른 전제로부터 결론을 연역적으로 추론한 타당한 논증이 된다.

월턴의 논의를 참고한 [그림 1]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타당한 논증을 도식화한다.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는 여러 주장(claims)과 증거(evidence)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이 보여주듯, 상대방의 전제(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추론할 때 타당한 논증이 된다.

2. 형식적 오류

같은 말도 전후맥락에 따라 오류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26]. 오류에 관한 논의는 실용적 오류 이론, 화용론, 대화론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됐다. 이 연구는 다수 학자가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오류 형태만을 검토해 TV토론에 적용한다.

오류는 크게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구분된다. 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의 형식을 띠지만 ‘전제로부터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연역 논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27]. 형식적 오류는 비형식적 오류보다 규칙 위배의 정도가 더 뚜렷한 편이다. 그래서 형식적 오류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으로, 비형식적 오류는 “좋은 논증의 기준을 어기는 논증”으로 설명된다. 데이머에 따르면,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식적 오류는 ‘전건 부정(denying the antecedent)’과 ‘후건 긍정(affirming the consequent)’이다.

전건 부정의 오류는 ‘C라면 D다. C가 아니다. 그러므로 D가 아니다’로 기호화된다[28]. C가 아니어도 D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에, 전건 부정이 후건 부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 것이다. 후건 긍정의 오류는 ‘E라면 F다. F다. 그러므로 E다’라는 형태를 띤다. 검토된다[29].

3. 비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에 문제가 없으나 내용 등 다른 이유로 타당성이 약해진 논증으로, 그 유형들은 100개가 넘는다. 데이머의 책, 햄블린의 책, 박은진과 김희정의 책 등에서의 일반적 분류(common groupings of informal fallacies)에 따라, 정치 콘텐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형식적 오류의 유형들이 전제

에 관한 오류, 결론에 관한 오류, 사람에 관한 오류 항목으로 나뉘어 검토된다[29].

3.1 전제에 관한 오류

미입증된 전제, 증거, 사례와 관련된 오류 중 선결문제(begging the question)는 증명해야 할 결론을 참으로 전제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것이다[30]. “그 후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라는 주장과 같다. 이 오류는 ‘찬반 쟁점이 있는 전제를 쟁점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논증’도 포함한다.

복합질문(complex question)은 하나의 질문에 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상대방은 어떻게 답하던 수긍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수긍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31]. 예를 들어, “이제 폭음하지 않습니까?”라는 복합 질문에 대선후보가 “예”라고 답하면 ‘예전에 술을 폭음했다’라는 의미로 들린다. “아뇨”라고 하면 ‘계속 폭음한다’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잘못된 이분법(false dichotomy)은 “영토를 내놓아라. 아니면 전쟁이다”처럼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원치 않는 부당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다[32]. 증거 실종(missing evidence)의 경우, 제시된 증거는 대표성이 없거나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다[33].

은폐된 증거(suppressed evidence)는 결론에 배척되는 증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군이 어떤 지역에 공군기지를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보상 혜택만 열거하고 소음 문제를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34].

거짓 원인(false cause)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설정해 이 원인에서 결론을 추론한다[35]. “부자들은 고급 차를 탑니다. 당신도 고급 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라는 주장처럼, 원인과 결과의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은 “이 일을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일을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비탈 위에서 첫발을 잘못 내디더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지만, 파국으로 이어진다고 불만한 이유를 대지 않는다[36].

성급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는 한정된 사

례만을 근거로 보편적 원칙을 끌어낸다[37]. 선택된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빌 코스비나 오프라 윈프리를 보십시오”라는 주장은 이 오류에 속한다[38].

모호한 문장(ambiguity)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이다. G 정치인이 “저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말할 때, ‘G는 미국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로 들린다. ‘G와 미국은 모두 중국을 좋아하는 가운데, G가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은 미국이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로 들리기도 한다.

3.2 결론에 관한 오류

결론, 주제, 주장과 관련해, 핵심 이탈(missing the point)은 토론자가 전제와 결론을 맥락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결부시키는 것이다[39].

토론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단순화·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허수아비 오류(straw man fallacy)에 해당한다[40]. 상대방의 주장을 변형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그 허수아비와 싸움으로써 논쟁에서 쉽게 이기려는 것이다. H 정치인이 “맥주 관련 법을 완화합시다”라고 주장하자 I 정치인은 “안 됩니다. 도취성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욕구 충족에 눈이 멀어 윤리관을 잃게 됩니다”라고 반박한다. 이때 I는 H의 “완화”를 “접근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왜곡해 공격한 것이다[41].

혼제 청어 오류(red herring fallacy)는 악취를 내는 혼제 청어처럼 청중의 주의를 돌리거나 혼란을 유도해 토론의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42].

3.3 사람에 관한 오류

사람과 관련된 오류 중에서 힘에의 호소(appeal to force)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잠재된 권력에 기대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43].

군중의 호소(appeal to the masses)는 군중의 규모를 이용해 결론을 수용하게 한다. 군중이 화자의 주

장을 지지한다고 단정하면서 청취자들에게도 따를 것을 요구한다[44]. 상관없는 권위의 호소(appeal to irrelevant authority)에서 사례로 거명된 권위자는 결론과 무관하다. “축구 감독 조제 모리뉴와 가수 셀린 디옹도 국가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안사는 이 발언에 대해 “모리뉴와 디옹은 셀럽이지만 재정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못된 권위에 호소했다”라고 설명한다[45]. 무지에의 호소(appeal to ignorance)는 어떤 현상에 대한 반론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것에 대해 단정적 주장을 펴는 것이다[46].

피장파장(you too 또는 tu quoque)은 상대 공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피차일반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세영은 내로남불 폭로(우리 편의 추문을 공격하는 상대방의 유사한 과거 추문을 들춰내는 것)를 그 사례로 제시한다[47]. 정황적 오류(fallacy of circumstantial)의 경우, 상대의 주장을 어떤 개인적 정황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 주장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공격한다[48]. “그 후보는 수도 이전에 반대하지만, 저는 그 말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 후보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깐요”라는 주장은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황적 오류에 속한다.

인신공격(fallacy of abusive)은 상대의 도덕성과 언행에 관한 부정적 면을 강조해 상대 주장을 허물려는 것이다[49]. 쇼펜하우어는 “논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인신공격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된다. 토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 기술을 꺼낸다”라고 말한다[50]. 인신공격을 받은 토론자는 자존감 실추와 명예 훼손으로 고통, 당황, 흥분을 경험한다. 인간의 야수성에 호소하는 인신공격으로 TV토론이 적개심으로 가득 차는 장면은 자주 목격된다.

4. 정치 콘텐츠와 오류

선거 메시지와 같은 정치 콘텐츠는 반론을 논파하고 미디어와 여론을 설득하려는 목적성을 갖는다[51]. 경쟁하는 정파의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는 일은 비밀비재하며, 결국 설득수단을 오용(misuse)하거나 남용(abuse)하는 오류가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 통치권을

놓고 벌이는 TV토론에서 논쟁은 격렬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논리적 이탈도 잦다[52].

안사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 콘텐츠 내 오류는 △형식적 오류보다 비형식적 오류가 많고, △선거 승리나 이미지 방어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의로 만들어지며, △화자가 얻는 편익 대비 화자가 잃는 손실이 뚜렷하지 않다.

미디어와 공중은 대체로 오류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정치인은 ‘오류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적게 느껴 합리성(rationality)에 반하는 유사논증(pseudo-argument)인 오류를 TV 카메라 앞에서 습관적으로 구사한다[53]. 키밍스는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중을 오도하는 메시지가 정치적·상업적 동기(political or commercial motivations)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태국의 두 정당이 군부 쿠데타 시기에 여론 설득에 동원한 주장들을 분석한 연구는 이들이 7개 유형의 비형식적 오류를 사용한 점을 알아냈다[54].

특히,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비형식적 오류는 잘 결합하는 편이다. 한 연구는 2015년 영국과 스위스의 선거 기간 중 우파 대중영합주의자의 연설에서 다수의 비형식적 오류를 발견했다[55].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1992년 대선 구호가 인기를 끈 이후 한동안 미국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바보”로 낙인찍는 인신공격 오류부터 사용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다고 한다[56].

SNS에서의 정치토론의 활성화는 오류 사용을 촉진한다고 한다. 온라인 정치토론은 보통 길게 이어지고 이용자들은 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논쟁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으며 몇몇은 자기주장을 지키기 위해 불건전한 논증 기술을 서슴없이 사용한다[57]. 오류에 관용적인 이러한 온라인 정치토론 문화에 기성 정당과 유력 정치인도 동화된다.

다만, 월턴은 사람들이 보편적 이성의 작용으로 올바른 논증과 오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안사는 “정치지도자들이 특 하면 오류를 구사하는 나라에 사는 유권자는 반드시 논증의 오류를 감지(detect)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한다.

디지털 영상문화 시대에 대선후보 TV토론 및 모바일

일·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평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58-60]. 공직선거법(250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되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한다[61]. 이러한 점은 타당한 논증 규칙에 부합하는 TV토론이 민주주의 구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TV토론을 비롯한 정치 콘텐츠에서의 부당한 논증의 사용 여부를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 대선 TV토론에서 오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가치가 크지만, 공백으로 남아있다.

III. 연구방법론

2~5장에서 TV토론에서의 타당한 논증 구조, 정치 콘텐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유형들, 외국 정치 콘텐츠에서 실증된 오류사례가 검토됐다.

1. 분석대상

20대 대선 본선에서 후보 TV토론은 네 차례 열렸다. 이 중에서 2022년 2월 3일 처음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이하 합동 토론회)와 3월 2일 마지막으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이하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제1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검토대상 두 TV토론은 240분 분량이며, 전체를 중계한 MBC와 KBS의 방송영상을 통해 확인된다.¹

2. 연구분석틀

이 연구는 논의된 20개 오류 개념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타난 오류를 질적 분석으로 규명한다. 질적 연구의 핵심은 수집한 자료를 유의

미하게 유목화하는 데에 있다[62]. 이 연구의 유목은 형식적 오류인 (1) 전건 부정, (2) 후건 긍정, 비형식적 오류 중 전제에 관한 오류인 (3) 선결문제, (4) 복합질문, (5) 잘못된 이분법, (6) 은폐된 증거, (7) 거짓 원인, (8) 미끄러운 경사길, (9) 성급한 일반화, (10) 모호한 문장, 비형식적 오류 중 결론에 관한 오류인 (11) 핵심 이탈, (12) 허수아비, (13) 혼제 칭어, 비형식적 오류 중 사람에게 관한 오류인 (14) 힘에의 호소, (15) 군중의 호소, (16) 상관없는 권위의 호소, (17) 무지에의 호소, (18) 피장파장, (19) 정황적 오류, (20) 인신공격이다. 이 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2장 이론적 배경의 2, 3절과 내용이 겹치고 분량이 많으므로 2, 3절의 관련 내용으로 대신한다.

3. 연구절차

코딩인 연구자와 두 명의 대학원생은 마샬과 로스만의 6단계 질적 연구절차에 따라 (1) 자료(후보들의 TV토론 발언 내용) 정리 및 친숙해지기, (2) (오류) 유목 익히기, (3) 자료를 유목 별로 코딩하기, (4) 자료에 대한 초기 이해 및 해석 점검하기, (5) 대안적 해석 및 설명 찾기, (6) 분석 결과 작성하기 순으로 분석을 진행했다[63][64]. 엄밀한 분석을 위해 토론 영상 속 발언 전체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오류 유목을 충분히 숙지한 뒤 발언에서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별했다. 20대 대선에서 여러 매체는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보도했는데, 세 코더는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에서 “합동 TV토론” “3차 TV토론” “팩트체크”라는 검색어로 이 보도들을 검색해 오류 분석에 참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명이 공통으로 선정한 오류를 모아 선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뒤 분석 결과에 서술했다.

IV. 분석 결과

분석 결과,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 발언 대부분은 논증 형식을 띠었으며, 네 후보 중 세 후보는 15개 유형에 걸쳐 23건의 비형식적 오류를 사용했다[표 1].

1 https://www.youtube.com/watch?v=C-T_SgT1Jwg
<https://www.youtube.com/watch?v=XIq-UrcsqpE&t=106s>

표 1. 20대 대선 TV토론 오류 횟수·유형

대선후보	오류 횟수	오류 유형(횟수)		
		선결문제(9)	결론(6)	사람(8)
이재명	12	선결문제 증거 실종 증거 실종 증거 실종 은폐된 증거	핵심 이탈 혼제 청어 혼제 청어	힘에의 호소 힘에의 호소 군중예의 호소 피장파장
윤석열	8	복합질문 거짓 원인 모호한 문장	핵심 이탈 허수아비 혼제 청어	군중예의 호소 무지예의 호소
심상정	3	성급한 일반화		무지예의 호소 인신공격
안철수	0			

형식적 오류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후보들이 변한 오류 중 선결에 관한 오류는 9건, 결론에 관한 오류는 6건, 사람에 관한 오류는 8건이었다. 후보별 오류 사용 건수는 이재명 후보 12건, 윤석열 후보 8건, 심상정 후보 3건, 안철수 후보 0건이었다.

대선후보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선거 의제를 보호하고 상대의 이미지와 의제에 타격을 주는 맥락에서 오류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후보들이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고도 오류를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후보가 여러 오류를 집중적으로 쓰는 경향성도 발견됐다.

1. 선결문제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이 ‘생명 안전 업무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라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3차 토론).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 못 지켜지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고”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선결문제의 오류’에 속한다. 안전 업무 직고용은 여러 기업, 경제단체, 보수정당이 반대한 논쟁적 사안이었다. 안전 업무 직고용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은 선결적 증거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증명된 것으로 여겨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것과 같다.

2. 복합질문

윤석열 후보는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내용을 열거한 뒤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했다(합동 토론).

윤석열 후보: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어느 만큼 확실하게 확보된 것인지 설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능하고 설계하신 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내포한다. 이 후보가 “네,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능하면서 설계했습니다”라고 답한다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라고 답하는 셈이 되고 사업을 설계했으니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다. 이 후보가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능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 질문은 상대가 어떻게 답하더라도 상대를 곤궁에 빠뜨리는 ‘복합 질문’에 해당한다.

3. 증거 실종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공 주택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는 임대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라고 물었다(합동 토론). 이 후보는 “공공 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진 마시고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제정된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는 “주택 건설·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었다. 이 후보의 말은 존재하지 않은 증거(지자체의 공공 주택 건축 불가능)로 결론(성남시의 임대 아파트 건축 불가능)을 지지한 증거 실종 오류였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공약에 대해 “LTV를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는 정말 중요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

갑자기 90%로”라고 주장했다(합동 토론). 윤 후보는 “90%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본인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며 재반박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지지한 증거는 “윤석열도 LTV 90%까지”라는 제목의 JTBC 1월 28일 보도가 유일했고, 윤 후보 캠프는 LTV 80% 공약을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 후보의 주장은 대표성이 없는 단 한 개의 자료에만 의존한 증거 실종 오류였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를 자폭행위라고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했다(3차 토론). 이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내십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실종됐다. 이 후보는 2022년 2월 22일 KBS 라디오에서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라고 했고 2021년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증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이고요”라고 했다.

4. 은폐된 증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원자력발전 확대 공약을 비판하면서 “EU(유럽연합)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체계(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인가 논란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물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가 의제여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라고 말했다(합동 토론). 안철수 후보는 “EU 텍소노미가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건이 붙어있어요”라고 했다. 토론 하루 전 EU는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했다. “조건이 붙어있어요”라는 말로 볼 때 이 후보는 이 결정을 알고 있었다. 이 후보는 ‘문제인 정부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만을 증거로 제시했고 ‘EU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론에 반대되는 핵심 증거를 무시한 은폐된 증거

의 오류에 속한다.

5. 거짓 원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저출산 원인을 이야기하시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교제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페미니즘이 남녀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했다(3차 토론).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2021년 8월 2일 국회에서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여러 원인이. 글을 보니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단 얘기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인 페미니즘이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페미니즘이 남녀교제를 막는다’라는 전제는 폭넓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 윤 후보의 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제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설정한 거짓 원인의 오류였다. 이 말은 윤 후보가 실제로 발언했고 TV토론 의제에 오르기도 했으므로 오류 분석의 대상이 됐다.

6. 성급한 일반화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님? 수도권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접근할 수 없거든요”라고 주장했다(합동 토론). 그 근거로 “청년 월가 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80% 원가를 장기저리로 갚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서울 24명을 원가에 공급하면 6억 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80%면 4억800만 원인데 20년 동안 2% 저리로 원리금 상환하면 한 달에 250만 원을 내야 해요. 이거 금수저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월가 주택 혜택이 부유층 청년에게만 돌아간다면 서울 주택 원가·이자 추산액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는 서울에만 한정된다. 서울 이외 수도권 주택 중 상당수는 서울 주택보다 원가가 낮다. 심 후보의 논증은 모집단인 수도권 주택을 대표하지 않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금수저 청년에게만 해당한다”라고 모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

표 2.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의 오류 발언 요지와 해설

오류 형태	발언자	발언 요지 (오류 이유)
선결문제 begging the question	이재명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 못 지켜져 매우 안타깝고. (안전 업무 직고용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선결적 증명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증명한 것으로 여김)
복합질문 complex question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능하고 설계하신 게 맞습니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는가”라는 질문을 내포한 복합질문으로, 상대가 어떻게 답하더라도 상대를 곤궁에 빠뜨림)
증거 실종 missing evidence	이재명	공공 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진 마시고요. (“기초단체의 공공 주택 건축 불가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제시함)
	이재명	LTV를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다가 갑자기 90%로. (윤석열 후보가 LTV를 바꿨다라고 밝힌 대표성 없는 단 한 개의 증거자료에만 의존해 주장함)
	이재명	(“과거에 증세를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 말했다”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어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음)
은폐된 증거 suppressed evidence	이재명	EU 텍스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인가 논란이고요. 우리나라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EU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한 사례 등 결론에 반대되는 핵심 증거를 알면서 언급하지 않음)
거짓 원인 false cause	윤석열	저출산 문제는 여러 원인이.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남녀교제를 막는다”라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제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설정함)
성급한 일반화 hasty generalization	심상정	서울 24평을 원가 공급하면 월 250만 원 내야 해요. 금수저 청년만 해당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원가 주택 공약을 비판하면서 서울 표본만으로 수도권 특성을 일반화함)
모호한 문장 ambiguity	윤석열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전히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다른 관점인지 모호함)
핵심 이탈 missing the point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합니다. 지능형 송배전망이 중요해요. 풍력 구조물 수출이 세계 최강입니다. (전제와 결론이 ‘디지털 전환으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라는 논의의 핵심에서 이탈함)
	윤석열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지 않습니까? (전제와 결론이 ‘EU 텍스노미와 원전의 관계’라는 논의의 핵심에서 이탈함)
허수아비 straw man	윤석열	2017년 대선 출마 전후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재명 후보의 “재벌해체 해체” 주장을 “재벌 해체”로 단순화 변형해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의 용이성을 높임)
흔재 청어 red herring	이재명	이런 이야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국민과 경제, 민생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싶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의제와 무관한 민생 등으로 돌림)
	윤석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대장동 피의자와 윤석열의 관계 의제에 답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로 돌림)
	이재명	답이 그겁니다. 답이. /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넘어갑니까?”라는 질문에) 아 그것도 답이죠.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 답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대장동 피의자와 윤석열의 관계 의제’로 돌림)
힘에 호소 appeal to force	이재명	국감 자청해 이를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고 언론까지 다 검증한 거예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 언론,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끌어와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서 벗어나려 함)
	이재명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규칙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의 타당성이 약해지자 토론주도권자의 권위에 의지해 윤 후보의 토론 태도를 힐난함)
군중의 호소 appeal to the masses	윤석열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나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군중을 끌어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불법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 후보의 자질을 폄하함)
	이재명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우러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이라는 군중에 호소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 대한 답변을 피함)
무지에 호소 appeal to ignorance	심상정	추계를 안 해 보셨어요. / 자료를 후보님이 내셔야지 왜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복지 공약 추계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계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윤 후보에게 돌림)
	윤석열	근거도 없이. /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하시던가. / 자료 없이 그냥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겠습니까? (“복지 공약 추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심상정 후보에게 돌림)
피장파장 you too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건 왜 인용을 안 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 답변하는 대신 상대도 피장파장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말함)
인신공격 abusive	심상정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 / 거짓말이죠. (복지 예산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이들의 인격을 공격함)

7. 모호한 문장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을 여전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3차 토론).

이 답변은 질문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제3의 관점인지가 불분명한 모호한 문장의 오류였다.

8. 핵심 이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써서 2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로드맵이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다(합동 토론).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능형 송배전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산업도 독일처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 하부 구조물 수출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라고 답했다. 답변 키워드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지능형 송배전망” “풍력발전”은 디지털보다 에너지에 가깝다. 이 후보가 발표한 ‘디지털 전환,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의 공약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6G 인프라” “디지털 규제 개편” “디지털 교육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을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윤 후보의 질문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답변의 전제와 결론은 ‘디지털 전환으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라는 논의의 핵심에서 이탈했다.

“EU 텍소노미가 지금 원자력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습니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자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가요?”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아니 유럽을 봐도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합동 토론). 이 답변의 전제나 결론은 ‘EU 텍소노미와 원전의 관계’라는 논의의 핵심에서 이탈해 이상하게 들린다. 윤 후보는 이후 EU 텍소노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9. 허수아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2017년 대선 출마하기 전이나 직후에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라고 물었다(합동 토론). 이 후보는 “재벌체제 해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2017년 발언은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돼 있었다. 윤 후보의 질문은 상대방의 “재벌체제 해체” 주장을 “재벌 해체”로 단순화·변형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공격의 용이성을 높인 허수아비 오류였다.

10. 혼제 청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느냐”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야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과 경제, 민생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만든 토론 자리가잖습니까?”라고 했다(합동 토론). 후보는 질문을 통해 토론 의제를 돌아가며 설정한다. 이 후보의 답변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설계 여부’라는 의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의제와 무관한 곳으로 돌렸으므로 혼제 청어 오류에 해당한다.

11. 힘에의 호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느냐”는 윤석열 후보의 계속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 자청해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거예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라고 했다(합동 토론). 이 후보의 말은 자신이 설계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는 대신 국회, 언론,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인용해 정당성을 얻으려 했다. “검증” “수사” 같은 과학적 용어를 동원했지만, 그 검증·수사의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토론 당시 국회, 언론, 검찰은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이 답변은 권력기관을 끌어와 토론 의제에서 벗어나려 한 힘에의 호소였다.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질문했다(3차 토론).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원래 일반예산을 그렇게 한 것으로, 성과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라고 했고 윤 후보는 “포인트가 왜 안 맞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라고 하자, 윤 후보는 “제가 그냥 일반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재반박했다. 이 논쟁에서 윤 후보의 반박은 합당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질문을 할 땐 들어주세요”라고

했고 윤 후보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했는데 오해하고 질문하시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재차 “질문을 할 때는 들어주세요”라고 했고 윤 후보는 “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규칙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대 답변의 맹점을 공격하려 했으나 본인 설명과 상대 답변이 별 차이가 없어 공격의 타당성이 약해졌다. 그러자 토론주도권자의 권위에 의지해 상대의 토론 태도를 힐난한 것이다.

12. 군중예의 호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승인했다”라는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을 전한 언론 보도를 열거한 뒤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라고 말했다(3차 토론). 당시 피의자들의 진술은 보도로만 전해졌고,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로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윤 후보의 말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 등 “국민”이라는 군중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이 입증되지 않은 상대의 불법을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의 자질을 깎아내린 군중예의 호소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우려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삶을 놓고”라고 한 이 답변도 “국민”이라는 군중에 의지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설계 여부”라는 토론 의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한 군중예의 호소였다.

13. 무지예의 호소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복지 공약에 대한 재정 계획을 안 냈다고 했고 윤 후보는 냈다고 했다(3차 토론). 심 후보는 “추계를 안 해 보셨어요”라고 재공격했다.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 하시던가”라고 했다. 심 후보는 “자료를 후보님이 내셔야지 왜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자료 없이 그냥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고 심 후보는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라고 했다. 무지예의 호소는 “외계인은 없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외계인은 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형태를 띤다. 심 후보와 윤 후보가 자기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증의 책임을 상대에게 계속 돌린 것은 무지예의 호소에 해당한다.

14. 피장파장과 혼제 청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피의자 진술을 열거하면서 이 후보에게 설계했는지 질의했다(3차 토론).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에 관한 질문들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구속돼 죽는다, 도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건 왜 인용을 안 하고.

윤석열 후보: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서 흑시나 (제가 기소되어) 법원에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윤 후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이 후보: 답이 그겁니다, 답이.

윤 후보: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만날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 후보: 아 그것도 답이죠.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건 왜 인용을 안 하고”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라는 이 후보의 답변 겸 질문들은 자신의 대장동 설계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대신 상대도 피차일반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피장파장의 오류였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김만배 씨)와의 관계

를 묻자 윤 후보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라며 답변을 추가 질문으로 대체했다. 이것은 ‘대장동 피의자와의 관계’라는 토론 의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라는 원래의 의제로 돌려놓으려는 흔제 청어 오류에 속한다.

“답변을 좀 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만날 이렇게 넘어갑니까?”라는 윤 후보의 계속된 질문에 이 후보는 “답이 그겁니다, 답이” “아 그것도 답이죠”라고 했다. 이 후보의 대응은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 여부’ 의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 청중의 주의를 ‘대장동 피의자와 윤석열의 관계’ 의제로 돌리려는 흔제 청어 오류에 해당한다.

15. 인신공격

심상정 후보는 다른 세 후보들이 공약별 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3차 토론). 세 후보들은 예산을 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목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복지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원 정도 되고”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거짓말이죠”라고 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심 후보는 세 후보의 반박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심 후보가 말한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구” “사기” “거짓말이죠”라는 내용은 상대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의 인격을 공격해 상대 주장의 정당성을 허물려는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한다.

[표 2]는 오류의 관점에서 20대 대선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다. 오류 발언 요지 및 오류 이유에 대한 해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V. 결론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추상적 차원으로 오류에 접근해왔지만, 이 연구는 대선후보 TV토론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치 텍스트

에서 오류가 사용되는 양상을 규명한다. 그럼으로써 오류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현대 미디어 데모크라시의 핵심인 TV토론을 로고스(logos, 논리와 이성) 차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이 연구의 특장점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다양한 비형식적 오류가 사용되는 현상을 알아낸 점, △국내 연구에서 별로 소개되지 않은 오류 유형도 TV토론에 동원되는 사실을 규명한 점,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오류 연구를 사회과학의 실증 영역으로 확대한 점, △정치·선거 담론에서 오류가 범해지는 주된 맥락과 이유를 제시한 점, △언론사의 팩트체크 수준을 넘어 TV토론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을 제공한 점으로 정리된다.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20개 오류 개념을 20대 대선의 1·4차 후보자 토론회 발언 내용에 적용해 분석한 부분이다. 두 토론회는 수십 %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대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분석 결과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여러 오류를 사용하는 현상을 세밀하게 입증한다. 세 후보의 발언 중 비형식적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은 23곳으로, 선결문제, 복합질문, 증거실종, 은폐된 증거, 거짓 원인, 성급한 일반화, 모호한 문장, 핵심 이탈, 흔제 청어, 허수아비, 힘에의 호소, 군중의 호소, 무지에의 호소, 피장파장, 그리고 인신공격 등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었다. 전체에 관한 오류는 9건, 결론에 관한 오류는 6건, 사람에 관한 오류는 8건이었다. 형식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후보별 사용횟수는 이재명 후보 12건, 윤석열 후보 8건, 심상정 후보 3건, 안철수 후보 0건이었다.

후보들이 사용한 오류 중에는 흔제 청어, 허수아비, 선결문제, 피장파장 등 ‘국내에서 별로 다루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진 오류 유형’도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오류에 관한 국내 논의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오류 이론의 현실 적용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수세에 몰린 토론자가 토론 의제에서 다소 벗어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시청자의 주의를 돌리는 것은 TV토론에서 흔히 목격되는 장면인데, 흔제 청어 오류로 잘 설명된다.

오류의 맥락 및 이유와 관련해, 후보들은 주로 상대의 공세로부터 자신의 이미지와 선거 의제를 방어하고 상대의 이미지와 의제 타격을 주려는 맥락에서 오류를

활용했다. 특히, 답하기 곤란한 토론 의제에 직면할 때 여러 오류를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팩트체크에 걸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도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나면 언론은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그러나 보도는 단편적 사실 확인에서 대개 멈춘다. 반면, 이 연구는 팩트체크 차원을 넘어 토론 발언의 논리적 정합성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발언에 있을지 모르는 반이성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 세부 내용을 해석한다. 실제로, 언론사 팩트체크에 포착되지 않은 토론 발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오류로 분류되는 점이 확인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동의하는 내용을 내 결론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증 규칙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자주 무시된다. 후보들이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는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논제를 피해 가는 모습이 자주 감지된다. 이때 이들은 ‘외견상 타당해 보이지만 합리성에 반하는 유사논증’인 오류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상적 논증으로는 방어나 공격이 어렵다고 여기면 오류라도 동원해 보는 것으로 비칠 정도다. 오류 사용의 편익 대비 손실이 뚜렷하지 않은 점은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후보자의 자기 검증을 무디게 하는 듯하다. 이러한 함의는 대선 후보 TV토론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 연구는 오류 체계가 대선후보 TV토론 같은 중요한 정치 콘텐츠의 분석 및 해석 틀로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토론에서 오류가 과사용 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이 연구는 오류가 아닌 논증도 검토해 대선 후보 TV토론의 타당한 논증 구조를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TV토론에서의 타당한 논증과 오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대선 후보가 전국에 방영되는 TV토론에서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예러나 기교를 사용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조사된 적이 별로 없다. 이 측면에서 이 연구는 흥미롭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는 “후보들이 비교적 정직하게 토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수용하기엔 오류의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번 결과는 “타당

한 논증과 오류가 뒤섞여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TV토론 정치의 실제 모습”이라는 함의를 준다. 이점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이성과 논리를 희생하는 비형식적 오류가 정치 담론에 많이 포함된다”라는 일부 해외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지도자가 특 하면 오류를 구사하는 나라의 유권자는 오류를 감지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안샤의 말은 주목할 만하다. 오류 개념을 알고 TV토론에 적용하는 시청자는 토론자의 주장 가운데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어 토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시청자와 미디어가 많아지면 후보자의 오류 남용은 자제되고 TV토론의 공론장 기능은 복구된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오류 체계에 의한 분석은 이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한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당성 결여의 정도가 형식적 오류보다 덜한 비형식적 오류는 청취자에 따라 오류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시청자는 이 후보의 발언을 오류가 아닌 말로 규정하는 데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 TV토론의 오류를 양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적 주장의 전후 맥락은 그 주장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 맥락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 반면, 질적 연구는 텍스트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해석을 제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65].

정치 콘텐츠 속 오류를 자주 탐구하다 보면 오류를 쉽게 걸어낼 수 있고 극단적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광고, 논평, SNS 정책홍보 등 다양한 정치 콘텐츠를 오류와 논증의 측면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공직 후보 TV토론의 운영에 있어선, 열띤 논쟁은 보장하되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이 토론에 사용된 논증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류’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식별되진 않겠지만 개연적으로 식별될 수는 있다. 타당한 정치담화와 오류를 구별하는 노력은 정치 콘텐츠 유관 학문의 확장 과 곧잘 진흙탕 싸움이 되는 미디어 데모크라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M. M. Franz and T. N. Ridout, "Political Advertising and Persuasion in the 2004 and 2008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38, No.2, pp.303-329, 2010.
- [2] C. Lee and W. L. Benoit,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2002 Korean Presidential Debates," *Asian J. of Communication*, Vol.15, No.2, pp.115-132, 2005.
- [3] 이동연, "뉴미디어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황해문학*, 제113호, pp.74-90, 2021.
- [4] ytn.co.kr/_ln/0101_202203090159022260
- [5] S. Aikin and R. Talisse, *Why We Argue (And How we Should)*, Routledge, 2013.
- [6] C. D. Broad, "Some Common Fallacies in Political Thinking," *Philosophy*, Vol.25, No.93, pp.99-113, 1950.
- [7] L. Cummings, "Giving Science a Bad Name," *Argumentation*, No.19, pp.123-143, 2005.
- [8] 최훈, "사람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논리연구*, 제6권, 제3호, pp.51-68, 2003.
- [9]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10] C. L. Hamblin, *Fallacies*, Vale Press, 1970.
- [11] 최훈, *논리는 나의 힘*, 세종서적, 2003.
- [12]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현실사, 1995.
- [13] 박은진, 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 [14] 하병학,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철학과현실사, 2001.
- [15] G. Jason, "The Nature of the Argumentum ad Baculum," *Philosophia*, Vol.17, No.4, pp.491-499, 1987.
- [16] 여영서, "오류의 정의," *범한철학*, 제45권, 제2호, pp.187-206, 2007.
- [17] 김동현, "동어반복의 오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pp.85-96, 2020.
- [18] T. E.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Cengage Learning, 2020.
- [19] G. Bowles, "Evaluating Arguments," *Informal Logic*, Vol.13, No.1, pp.1-20, 1991.
- [20] T. E. Damer, *Attacking Faulty Reasoning*, Cengage Learning, 2020.
- [21] D. N. Walton, *Informal Logic: A Pragmatic Approach*, Cambridge Univ. Press, 2008.
- [22] D. N. Walton and E. C. W. Krabbe, *Commitment in Dialogue*,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5.
- [23] 김유석, "이소크라테스와 개연성의 수사학," *법사학연구*, 제46호, pp.511-543, 2012.
- [24] 박삼열, "논증 활동으로서의 토론과 수사학," *서강인문논총*, 제28호, pp.77-103, 2010.
- [25] E. M. Barth and E. C. W. Krabbe, *From Axiom to Dialogue*, De Gruyter, 1982.
- [26] 최훈, *논리는 나의 힘*, 세종서적, 2003.
- [27] P. F. Kiskak, *The Logical Fallac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5.
- [28] 최원배, "반 맥기의 반례, 확률, 그리고 애매성," *논리연구*, 제19장, 제2호, pp.233-251, 2016.
- [29] R. Ansah, *A Critical Study of Informal Fallacies in Some Socio-Political Discourse in Ghana*, Univ. of South Africa: Doctoral Thesis, 2019.
- [30] C. L. Hamblin, *Fallacies*, Vale Press, 1970.
- [31] R. Arp, S. Barbone, and M. Bruce, *Bad Arguments: 100 of the Most Important Fallacies in Western Philosophy*, Wiley Blackwell, 2019.
- [32] L. Bennett, *False Dichotomy*, Lulu Com, 2010.
- [33] T. Bustamante and C. Dahlman, *Argument Types and Fallacies in Legal Argumentation*, Springer, 2015.
- [34] D. Walton, *Fallacies Arising from Ambiguity*, Springer, 1996.
- [35] C. S. Layman, *The Power of Logic*, McGraw-Hill, 2004.
- [36] 이혜정,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유혹: 그 실체의 탐구," *주관성연구*, 제129호, pp.267-290, 2014.
- [37] I. M. Copi and C. Cohen, *Introduction to Logic*, Prentice Hall Inc, 1998.
- [38] 박은진, 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 [39] P. J. Hurley, *A Concise Introduction to Logic*, Cengage Learning, 2017.
- [40] R. H. Johnson and J. Blair, *Logical Self-Defense*,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2006.
- [41] P. Madsen, *How to Win Every Argument: The Use and Abuse of Logic*,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7.

- [42] L. Dzamic, "The Hunt for the Red Herring," J. of Direct, Data and Digital Marketing Practice, No.13, pp.198-206, 2012.
- [43] G. Jason, "The Nature of the Argumentum ad Baculum," Philosophia, Vol.17, No.4, pp.491-499, 1987.
- [44] P. J. White, *The Appeal to the Masses*, Univ. of Denver, Sturm College of Law, 2008.
- [45] R. Ansah, *A Critical Study of Informal Fallacies in Some Socio-Political Discourse in Ghana*, Univ. of South Africa: Doctoral Thesis, 2019.
- [46] D. Walton, *Argument from Ignorance*,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2010.
- [47] hani.co.kr/arti/opinion/column/1039391.html
- [48] I. Pocock, *The Maid and the Magpie, Or, The Fallacy of Circumstantial Evidence*, J. Dick, 1910.
- [49] F. R. Harrison III, *Logic and Rational Thought*, West Publishing Company, 1992.
- [50] A. Schopenhauer, *The Art of Being Right: 38 Ways to Win an Argument*,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8.
- [51] R. H. Johnson, *The Rise of Informal Logic*, Univ. of Windsor, 2006.
- [52] R. H. Johnson and J. Blair, *Logical Self-Defense*,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2006.
- [53] B. K. Matilal, *Logic, Language and Reality*, Motilal Banarsidass, 2008.
- [54] C. Naktraum, "The Logical Fallacies in Thailand Political Crisis (2013-2014)," Psakuijir, Vol.3, No.1, pp.23-26, 2014.
- [55] S. Blassing, F. Büchel, N. Ernst, and S. Engesser, "Populism and Informal Fallacies," Argumentation, No.33, pp.107-136, 2019.
- [56] A. Coulter, *Slander: Liberal Lies About the American Right*, Crown Publishing Group, 2002.
- [57] S. Sahai, O. Balalau, and R. Horincar, "Breaking Down the Invisible Wall of Informal Fallacies in Online Discussions,"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No.1, pp.644-657, Aug. 2021.
- [58] 이호은,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의 수용 태도 연구," 주관성연구, 제58권, pp.89-107, 2022.
- [59] 차영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 투표 형태와 정치 캠페인 및 정치광고에 대한 수용자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385-398, 2018.
- [60] 함민정, 이상우, "유튜브 정치 동영상의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태도 극화: 정치 성향별 내집단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pp.157-169, 2021.
- [61] 김현재,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pp.197-224, 2020.
- [62] 신재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와 실제*, 이모션북스, 2017.
- [63] 김상근, "텔레비전 탈장르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특성 -KBS 2TV <스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2호, pp.251-258, 2011.
- [64] C. Marshall and G. Rossman, *Designing Qualitati ve Research 6th Edition*, SAGE, 2014.
- [65] 허창수, "브리콜라주로서 질적 연구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278-287, 2017.

저 자 소 개

허 만 섭(Man-Sup Heo)

정회원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 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언론·정보학)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